

## 카뮈 소설 속의 알제리

金 鎮 植  
불어불문학과

### <요 약>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인 즉, pied noir인 알베르 카뮈는 자기가 성장해 온 알제리를 정신적인 고국으로 여기면서 알제리의 현실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기에, 그의 작품 속에는 알제리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알제리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경우, 알제리는 어떤 주된 사건이 일어나는 지리적 장소라는 지극히 단순한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알제리 현실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거나 그것이 소설 진행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작품은 흔치 않다. 그 몇몇 안되는 작품 중의 하나인 단편집 『적지와 왕국 L'Exil et le Royaume』에 속한 『손님 L'Hôte』을 통해서 알제리 사태에 대한 카뮈 생각이 어떻게 변용되어 소설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주인공의 입장; <잘 알고는 있지만 현상황에서는 거부하는 동료애>라는 망설임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의 의미와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

## L'Algérie à travers le roman camusien

Kim Jin-Chic

Dep.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 <Résumé>

Français né en Algérie, donc pied noir, Albert Camus a considéré l'Algérie comme sa patrie spirituelle. Et il avait beaucoup de soins sur la réalité algérienne et surtout l'affaire d'Algérie qui était le conflit subtil entre la France et l'Algérie, donc tant de choses algériennes apparaissent fréquemment dans ses oeuvres. Mais dans la plupart des cas, l'Algérie s'y trouve seulement comme un décor accessoire qui aide l'évolution du récit, et pourtant, *L'Hôte* dans *L'Exil et le Royaume* est une des oeuvres qui montrent le problème algérien relativement plus

directement que les autres.

Nous avons essayé d'y illustrer comment se montre la pensée de Camus et celle-ci se transforme. Enfin nous avons trouvé la maxime qui peut bien traduire sa situation sur le problème algérien, et qui est "*Fraternité qu'il refusait dans les circonstances présentes et qu'il connaissait bien.*" Et nous en avons trouvé le sens et les aspects.

## I.

카뮈는 알제리에서 태어나 그 곳 아랍인들과 함께 성장한 프랑스인, 즉 pied noir이다. 국적은 프랑스인이지만 알제리를 거의 정신적인 고국으로까지 여기던 카뮈였기에, 또한 알제리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그였기에, 그의 작품 속에는 알제리가 자주 등장한다. 그의 출세작이라 할 수 있을 <이방인 L'Étranger>의 무대는 알제이며 <페스트 Peste>의 무대도 알제리의 한 도시 오랑이며, 뛰어난 감수성의 에세 <결혼 Noces>이나 개인적 고백서이며 그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포리 L'Envers et l'Endroit>의 상당 부분도 알제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 속에서의 알제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의 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어떤 주된 사건이 일어나는 지리적 장소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 요소로서만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아름다운 곳이 굳이 알제리가 아니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알제리가 아니더라도, 작품의 흐름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특히 소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몇몇 알제리 현지인, 즉 아랍인들에 대한 작가의 시선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가령 <이방인>의 경우에, 작가 시선은 항상 주인공 뫼르소의 눈을 통해서, 즉 뫼르소의 의식을 통과하는 굴절을 통해서 외계를 포착하므로, '자유간접화법'이라는 서술 기법과 만나서 무관심하며 부조리한 실존적 인간을 뛰어나게 묘사한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랍인들이 한결같이 이름이 없는 것이 수궁이 되기도 한다. 레이몽의 옛애인이나 주인공의 총에 맞아 죽는 그녀의 오빠도 모두 이름이 없다.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 살인 행위의 피해자에게마저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살인 행위 그 자체이지 결코 그 희생자가 아니라는, 나아가서는 살인하는 주인공 뫼르소가 중요하지 죽는 아랍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프랑코하의 스페인을 인정한 데 반대해 유네스코 탈퇴를 주장하고, "이 세상 어딘가의 한 노동자가 자기가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면서 맨손으로 탱크에 항거할 때, 이를 도른 채 한다면 우린 과연 무엇인가?"라고 연설하던 카뮈를 알고 있다. 그러한 그였기에 독립을 주장하는 알제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프랑스의 과격한 행위를 <Alger républicain>이나 <Soir républicain> 등의 신문 기사를 통해 고발하거나 알제리 전쟁의 해결책을 언론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언론이나 연설을 제외하고는 창작 작품 속에서 알제리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그의 유일한 단편집 『적지와 왕국 L'Exil et le Royaume』에 있는 <손님 l'Hôte>이 알제리 사태가 비교적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손님>을 통해서 당시 알

제리 현실이 카뮈의 창작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는지, 알제리 사태에 대한 작가의 입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손님>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알제리 고원지대의 분교 교사인 프랑스인 Daru는 며칠 전부터 내린 눈으로 휴교 중인 학교를 혼자 지키고 있는데 말을 탄 늙은 프랑스 헌병 Balducci가 한 아랍인 죄수를 짊어 매고서 데리고 온다. 헌병은 자신들은 지역 치안에 바쁘므로 자신을 대신해서 아랍인을 Tinguit의 감옥까지 인도해 주라는 명령을 다뤘에게 남기고 다시 내려간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다뤘은 발두치를 원망한다. 그렇다고 아랍인을 자기가 직접 풀어주지도 못하면서 단지 아랍인 스스로 도망칠 수 있도록 은연중에 기회를 주지만 그 죄수는 끝내 도망가지 못한다. 망설임 끝에 다음 날 길을 떠난 다뤘는 갈림길에서 아랍인에게 이틀간 버틸 수 있는 음식 꾸러미와 천 프랑의 돈을 건네주고, 단지 감옥으로 가는 길과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암시해 주고는 혼자 남겨둔 채 학교로 다시 올라온다. 그러나 그는 감옥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죄수를 멀리서 바라보고는 가슴 죄이면서 엄청난 고독감에 사로잡힌다는 아주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이다.

비교적 큰 사건 없이 담담하게 진행되는 이 단편은 그러나 우리에게 알제리 현실에 관한 작가의 입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줄에 묶여 말탄 헌병에 의해 끌려가는 아랍인 죄수는, 그 당시 알제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델로 했었다는 작가의 한 친구의 주장은 <손님>이 알제리 현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한 근거가 될 것이다.<sup>1)</sup>

주인공 다뤘의, 교사라는 신분과 출생 환경이 작가와 많은 관련이 있다. 작가가 안 되었다면 의사나 교사가 되길 원했다고 평소에 즐겨 말했다는 카뮈의 발언에서도 그러하며<sup>2)</sup> 의식적으로 다뤘를 알제리, 그것도 바로 이 지방 출신으로 만드는 작가의 의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손님>에는 처음의 필사본 원고와 중간의 타자본 그리고 최종 완결본 등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 중 우선 드러나는 차이는 다뤘가 타향인이던 것이 이 고장 출신인 것으로 변하였고, 아랍인의 가난한 생활상의 정도가 완화되고 아랍인 죄수의 유아 살해가 삭제된 것일 것이다.

가령 두번째 타자본에는,

Daru, qui était né sur la côte, fraîche et fleurie, avait eu du mal à s'habituer. Un jour, pourtant, il avait découvert qu'il l'aimait.<sup>3)</sup>

1) El Aziz Kessous, “남부 지방의 한 회교도가 어떤 혐의로 체포되어 아랍 천막촌에서 도청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갔다. (∼)카뮈도 당시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을 잘 알았었는데 이 비인간적인 모습이 그의 의식에 너무나 큰 인상을 주어 그의 의식에 깊숙히 남아 있었던 것 같다”. Simoun, 31, Albert Camus, *Théâtre, Récits, Nouvell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2(이하 Pléiade I로 약칭) p. 2049

2) Pleiade I p. 2048 참조

3) Ibid. p. 2050

라고 되어 있었으나, 완결 발표본에서는,

*Mais Daru y était né Partout ailleurs, il se sentait exilé*<sup>4)</sup>

로, 즉 기후 좋은 해안 출신이던 것이 고원지방의 출신으로 변해있다. 발두치와 다뤘의 임무 논쟁 장면에서도 두번째 원고에는,

Il n'aimait pas qu'on lui rappelle qu'il était un amateur, ni surtout qu'à trente-cinq ans, lassé des complications de sa vie, de ses femmes, de l'injustice qu'il se faisait et qu'il faisait malgré lui à tant d'êtres, *il avait quitté la direction de sa compagnie et avait demandé à entrer dans l'enseignement* C'était fait maintenant, il avait horreur de regretter, de remettre en question Et puis, *il aimait ce pays qu'il avait découvert*, avec ses milliers d'hommes et leur misere<sup>5)</sup>

라고 다뤘가 타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으나, 최종 완결본에서는 이 대목이 빠져 있다. 이 삭제 이유에 대해서 Roger Quilliot는 다뤘가 이 지방과는 낯선 자가 아니란 걸 암시하기 위해서, 혹은 이 작품이 <전락 la Chute>의 메아리로 여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하고 있는데,<sup>6)</sup> 이는 결국 다뤘가 비록 프랑스인이지만 알제리와는 누구보다도 더 절친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그러므로 제삼자가 이 알제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입지점을 마련하기 위한 작가의 은밀한 의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주민들의 가난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원고에는 “모두가 예외없이 가난했기에”<sup>7)</sup>로 되어있던 것이, 최종본에서는 “예외없이 *sans exception*”<sup>8)</sup>가 빠져있다. 또한 배고픈 어린 아이가 먹을 것을 찾아서 땅을 뒤지는 처참한 다음 이야기도 처음 원고에는 있었으나 완결본에서는 완전히 빠져있다.

Il serait difficile aussi d'oublier le petit Mouloud, grattant la terre sous l'appentis, pour découvrir, dans cet endroit un peu abrité du soleil, une racine encore mangeable<sup>9)</sup>

이처럼 작가는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의도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아랍인이 저지린 죄를 묻는 대목의 원고에는,

Il a tué son cousin *et le fils de son cousin*.  
 -Ah! *Ce n'est pas un rebelle?*  
 -*Remarque, fils, qu'ils le sont tous* Mais celui-la est un droit commun.  
 -Pourquoi l'a-t-il tué?  
 -Ça tu sais *C'est courant chez eux* Des affaires de famille<sup>10)</sup>

라고 되어 있었으며, 발두치가 떠난 뒤 다뤘와 아랍인의 대화도,

4) Ibid. p. 1613

5) Ibid. p. 2050

6) Ibid.

7) Ibid. p. 2049, “*puisque tous, sans exeption, étaient pauvres.*”

8) Ibid. p. 1612

9) Ibid. p. 2050

10) Ibid. pp. 2050~2051

Pourquoi as-tu tué l'enfant? dit-il d'une voix dont la méchanceté le surprit.  
 -L'enfant? dit l'auteur et ses yeux semblèrent foncer à force d'incompréhension.  
 -Oui, le fils.  
 -C'était un homme. Il avait treize ans.  
 -Qu'est-ce qu'il t'avait fait?  
 -C'est son père. Il me devait du grain.  
 -Et pourquoi le fils?  
 -C'est la même famille. Et puis il s'est sauvé. J'ai eu peur. Dieu l'a voulu<sup>11)</sup>

라고 되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아랍인의 유아살해 부분과 아랍인을 모두 반군으로 취급하는 프랑스 현병의 발언도 모두 빠져있다.

이처럼 초고와 완결본 사이의 내용 변경은 당시에 대립관계에 있던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의 중립을 지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적지와 왕국』을 쓸 당시의 카뮈는 비극적인 고독에 시달렸다. 1956년 알제리 여행에서 휴전을 호소했으나 스스로 동향인이라 여기고 있던 알제리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저는 알제리에서 아주 낙심해서 돌아왔습니다. (~) 저한테는 개인적인 불행입니다.”라고 편지할 정도로 알제리인의 거부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었으며,<sup>12)</sup> 프랑스에서는 이유도 모른채 시샘을 받고 질투를 당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 작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런 당시의 작가 상황을 고려해야만 이 내용 변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알제리인의 가난과 유아살해를 상대적으로 정도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느 편을 비난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배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다른 한 편에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기도하다. 이는 『적지와 왕국』의 다른 소설 <姦婦 *La Femme Adultère*>에서도 드러나는 현상인데, <간부>의 주인공 Janine의 남편 Marcel이 아랍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초고에서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이었으나 완결본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많이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카뮈의 소설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나친 표현의 기피현상은 결국 어느 진영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다시말해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중립고수의 숨은 의도의 소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양진영의 비난을 피하면서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중립고수의 의지가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아랍인 죄수를 인도해 주라는 발두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다가 마침내는 수락하는 장면을 보자.

-Ecoute, Balducci, dit Daru soudainement, tout ça me dégoûte, et ton gars le premier.

11) Ibid, pp.2051~2052

12) Ibid xxxv~vii

13) Cf. “Camus a simplement atténué les propos quelque peu racistes qu’il prête à Marcel”. Roger Quilliot, Présentation de <La Femme Adultère>, Pléiade I, p.2040

Mais je ne le livrerai pas. Me battre, oui, s'il le faut. Mais pas ça." Le vieux gendarme se tenait devant lui et le regardait avec sévérité

-Tu fais des bêtises, dit-il lentement. Moi non plus, je n'aime pas ça Mettre une corde a un homme, oui, on a honte Mais on ne peut pas les laisser faire."

-Je ne le livrerai pas, répéta Daru.

-C'est un ordre, fils. Je te le répète.

-C'est ça. Répète-leur ce que je t'ai dit: je ne le livrerai pas.

Balducci faisait un visible effort de reflexion Il regardait l'Arabe et Daru. Il se décida enfin.

-Non. Je ne leur dirai rien Si tu veux nous lâcher, à ton aise, je ne te dénoncerai pas. J'ai l'ordre de livrer le prisonnier: je le fais. Tu vas maintenant me signer le papier.

-C'est inutile. Je ne nierai pas que tu me l'as laissé.

-Ne sois pas méchant avec moi. Je sais que tu diras la vérité Tu es d'ici, tu es un homme. Mais tu dois signer, c'est la règle.

Daru ouvrit son tiroir, tira une petite bouteille carrée d'encre violette, le porte-plume de bois rouge avec la plume *sergent-major* qui lui servait à tracer les modèles d'écriture et il signa.<sup>14)</sup>

다뤄는 우선 아랍인 죄수를 감옥에 넘겨주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아랍인 죄수가 정의의 투사라든지 정당한 행위를 한 신념의 양심범이라든지 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 인간성에서 개인적인 매력을 느꼈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랍인은 그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킨다 *dégoûte*”. 그렇지만 그는 그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한다. 죄인을 감옥에 넘겨주는 것은 <명예롭지 않지>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나이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 지방 출신인” 그가 죄수를 넘겨준다는 것은 “그의” 명예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Le crime imbécile de cet homme le révoltait, mais le livrer était contraire à l'honneur d'y penser seulement le rendait fou d'humiliation.<sup>15)</sup>

그렇다. 아랍인 죄수를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랍인이 어떡해서가 아니라 다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결과이다. 죄수를 넘겨준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치욕스러워서 미칠 정도인 자기 자신의 명예감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방인>에서 중요한 것은 뫼르소의 살인행위이지 결코 누구의 죽음이 아니듯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주인공 다뤄가 누군가를 감옥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명예심이지 결코 그 대상인 아랍인의 정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랍인 죄수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우선 이 작품에서도 카뮈의 다른 소설에서와 같이 이 아랍인은 항상 익명의 존재 혹은 무명의 사물처럼 나타나고

14) Ibid, p. 1616

15) Ibid, p. 1621

있다. <이방인>에서 주인공 Meursault와 Raymon, Saintes, Marie, Salamano 등의 유럽인들은 모두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반해, 모든 아랍인들은 한결같이 이름이 없는 것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유일한 아랍인인 이 아랍인 죄수에게도 이름이 없을 뿐더러 때로는 동물과 유사하게 때로는 단순한 타자 l'autre로서만 등장한다. 가령, 프랑스 헌병 발두치의,

On m'a dit de te confier ce zèbre et de rentrer sans tarder.<sup>16)</sup>

라는 발언속에 깃들어있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도 한 지표는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진영을 대표하는 발두치는 이 작품에서는 다뤘에게 적용하는 하나의 외부압력과 같은 것이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공 다뤘의 시각일 것이다. 아랍인과 함께 자기 방에서 같이 잠자게 된 데 대해 다뤘가 불평하는 다음 대목만큼 다뤘의 시각을 가장 잘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도 없을 것이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덕목이라도 스스로의 요구 없이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다뤘의 자세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Dans la chambre où, depuis un an, il dormait seul, *cette présence le gênait. Mais elle le gênait aussi parce qu'elle lui imposait une sorte de fraternité qu'il refusait dans les circonstances présentes et qu'il connaissait bien* les hommes, qui partagent les mêmes chambres, soldats ou prisonniers, contractent un lien étrange comme si, leurs armures quittées avec les vêtements, ils se rejoignaient chaque soir, par-dessus leurs différences, dans la vieille communauté du songe et de la fatigue. Mais Daru se secouait, il n'aimait pas ces bêtises, il fallait dormir.<sup>17)</sup>

<잘 알고는 있지만 현상황에서는 거부하는 동료애 fraternité qu'il refusait dans les circonstances presentes et qu'il connaissait bien>라는 표현이 다뤘의 아랍인에 대한 심정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다뤘는 동료애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생겨나는가를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동료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수반하기 마련인 어떤 의무감의 압박 때문이다. 어느 한 쪽에 편먹는다는 것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한게 결국 두 진영 사이에서 어느 한 진영을 결정하는 것이 되며, 그 결정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중립고수의 의지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립고수의 의지는 비결정의 의지로 나타난다.

Quand il se leva, aucun bruit ne venait de la salle de classe. Il s'étonna de *cette joie franche qui lui venait à la seule pensée que l'Arabe avait pu fuir et qu'il allait se retourner seul sans avoir rien à décider.*<sup>18)</sup>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여기서서는 아랍인이 스스로 도망치는 것, 그래서 자기 혼자 남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소설의 주인공 다뤘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독을 스스로

16) Ibid, p. 1614

17) Ibid, p. 1620

18) Ibid, p. 1618

원하고 있는 셈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고독을 느꼈다면 그것은 외부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비결정의 의지는 다뤘에게 있어서 거의 습관처럼 굳어져서 아랍인과 함께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자신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날 자기와 함께 갈 것인지를 묻는 아랍인의 물음에 다뤘는 자신도 모른다고 답한다.

—Tu viens avec nous ?

—Je ne sais pas. Pourquoi ?

Le prisonnier se leva et s'étendit à même les couvertures, les pieds vers la fenetre.

(~) "Pourquoi ?" répéta Daru, planté devant le lit.<sup>20)</sup>

"왜"라고 자문하는 다뤘의 독백은 자신에게 닥친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한 자문, 즉 이 상황을 야기한 모든 외적 요인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다뤘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 딜레마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랍인의 자발적인 도망을 꿈꾸는 다뤘의 태도는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Il(l'Arabe)allait vers la porte du fond qui donnait sur l'appentis. Il fit jouer le loquet avec précaution et sortit en repoussant la porte derrière lui, sans la refermer. Daru n'avait pas bougé: "Il fuit", pensait-il seulement. "Bon débarras!" Il tendit pourtant l'oreille. Les poules ne bougeaient pas: l'autre était donc sur le plateau. Un faible bruit d'eau lui parvint alors dont il ne comprit ce qu'il était qu'au moment où l'Arabe s'encadra de nouveau dans la porte, la referma avec soin, et vint se recoucher sans un bruit. Alors Daru lui tourna le dos et s'endormit. Plus tard encore, il lui sembla entendre, du fond de son sommeil, des pas furtifs autour de l'école. "Je rêve, je rêve!" se répétait-il. Et il dormait.<sup>21)</sup>

중립고수의 의지는 이렇게 비결정 의지와 수동성으로 나타난다. 그 수동성은 위 인용문처럼 아랍인 죄수의 도주 방조로 나타난다. 건물에 들어갈 때도 자신이 먼저 들어간다는지 위 인용문처럼 밤중에 밖으로 나가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은연중에 도주를 방조하는 다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애절한 노력은 앞에서 언급됐듯이 항상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즉 행위의 부재 상태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자면,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소극적인 방관이며, 내심으로 어떤 상태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현상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현상태를 유지시키면서 타인에 의한 현상태 수정을 꿈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기대하던 아랍인이 도주하지 않자, 다뤘는 자신을 이 곤궁에 빠뜨린 발두

19) 그러나 여기서 자주 나타나는 자신의 외로움을 한탄하는 듯한 다뤘의 태도는, 이런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0) Ibid. p. 1619

21) Ibid. p. 1620~21. 잠결에 도주하는 듯한 발자국 소릴 듣고 하는 말. "Je rêve, je rêve."는, rêver 동사의 뜻에 따라, "꿈이구나!"하는 실망이거나 "제발!"하는 바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의 큰 차이가 없다.



치에게로 서슴없이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 다음날 아침 출발하기 직전 아랍인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구렁가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곰곰히 생각한다.

Accroupi au bord du plateau, l'instituteur contemplait l'étendue déserte. Il pensait à Balducci. Il lui avait fait de la peine, il l'avait renvoyé, d'une certaine manière, *comme s'il ne voulait pas être dans le même sac.*<sup>22)</sup>

자신과 같은 곤궁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신에게 이런 난처한 짐을 지웠다고 발두치를 원망하는 다뤘는 끝이이 아랍인의 무능에게도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

A ce moment, de l'autre côté de l'école, le prisonnier toussa. Daru l'écoula, presque malgré lui, puis, furieux, feta un caillou qui siffla dans l'air avant de s'enfoncer dans la neige.(~) Et il maudissait à la fois les siens qui lui envoyaient cet Arabe et celui-ci qui avait osé tuer et n'avait pas su s'enfuir.<sup>23)</sup>

화가나서 자신도 모르게 돌맹이 하나를 집어 들어 던지는 행위는 딱 막힌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다뤘 욕망의 공격적 분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격성은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격의 대상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공격 주체가 문제일 따름이다. 여기서도 카뮈 특유의 행위 대상의 무관성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뤘가 이 순간에 공격성을 내보인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감당하도록 만든 발두치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부당한 행위>와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도망칠 줄도 모르는 <아랍인의 무능>에 대한 반응이겠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어찌지 못한다. 그 특유의 비결정을 견지하다가 고원의 갈림길에 이르러 아랍인에게 감옥가는 길과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암시만 해주고는, 선택은 순전히 그 아랍인에게 맡겨둔 채 다시 학교로 돌아와 버린다.

Daur inspecta les deux direction. Il n'y avait que le ciel à l'horizon, pas un homme ne se montrait. Il se tourna vers l'Arabe, qui le regardait sans comprendre. Daru lui tendit un paquet. "Prends", dit-il "Ce sont des dattes, du pain, du sucre. Tu peux tenir deux jours. Voilà mille francs aussi."(~) "*Regarde maintenant*", dit l'instituteur, et il lui montrait la direction de l'est "*Voilà la route de Tinguit. Tu as deux heures de marche. A Tinguit, il y a l'administration et la police. Ils t'attendent.*" L'Arabe regardait vers l'est.(~) Daru lui prit le bras et lui fit faire, sans douceur, un quart de tour vers le sud. Au pied de la hauteur où ils se trouvaient, on devinait un chemin à peine dessiné "*Ça, c'est la piste qui traverse le plateau. A un jour de marche d'ici, tu trouveras les pâturages et les premiers nomades. Ils t'accueilleront et t'abriteront, selon leur loi.*"<sup>24)</sup>

이 대목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선 이 작품의 첫 구상이라 할 수 있는 1952년부터 씌어진 <고원지대와 죄수 les Hauts Plateaux et le Condamné>라는 제목의 작품 메모와 비교해

22) Ibid. p. 1621

23) Ibid.

24) Ibid. pp. 1622~3

보자.

L'homme arrive et explique lui-même son crime.

“Voici, Ceci est la route de Djelfa Tu trouveras une voiture. Tu l'arrêteras A Djelfa, on trouve la gendarmerie et le train *Cette piste au contraire traverse les Hauts plateaux* Tu trouveras à un jour de marche d'ici les premiers pâturages et les nomades. Ils t'accueilleront. *Ils sont pauvres et misérables, mais ils donnent tout à l'hôte*”

L'homme qui se taisait depuis la veille dit seulement:

-*Ce sont des rois?*

-*Oui, dit Pierre, ce sont des rois*<sup>25)</sup>

<고원지대와 죄수>의 메모에서 드러나듯이 남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유목민은 왕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왕국이 된다. 이 사실은 “이 곳에서 태어난 다뤄는 다른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유배된 기분을 느꼈다”라는 인용문 4번과 함께 『적지와 왕국 L'Exil et le Royaume』이라는 이소설이 속한 단편집의 제목과 만나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가뭄 피해로 기아 상태에 빠진 주민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다뤄가 직접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어야 할 정도로 척박한 이 고원지대의 생활이지만, 그리고 수천 마리씩 양들이 죽어가고, 때로는 여기저기서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가는 열악한 토양이지만, 당사자 다뤄는 이곳 생활에 만족해 한다.

Devant cette misère, lui(=Daru) qui vivait presque en moine dans cette école perdue, content d'ailleurs, du peu qu'il avait, et de cette vie rude, s'était senti un seigneur, avec ses murs crépis, son divan étroit, ses étagères de bois blanc, son puits, et son ravitaillement hebdomadaire en eau et en nourriture.<sup>26)</sup>

나쁜 외부적 상황으로 볼 때 이곳은 滴地(Exil) 일테지만 다뤄에게는 王國(Royaume)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목민이 살고 있는 고원지대도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비참할지라도 왕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적지와 왕국은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똑같은 곳이 시각에 따라 적지도 되고 왕국도 되는 셈이다. 이는 <간부>에서 사막 내륙지방이 Janine에게는 신비로운 왕국으로 비쳐지는데, Marcel에게는 황량한 적지로 인식되는 것과 같다.

#### IV.

왕인 유목민들은 손님을 환대하고 보호해 주는데 그것은, 그들의 “법에 따라 selon leur loi” 그렇게 한다. 왜 갑자기 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결본에는 빠져있지만 초고에는 들어있었던 다음 대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랍인을 혼자 교실에 남겨둔 채 구렁에 앉아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꼼꼼히 생각하는 인용문 22번의 대목에는 다음 내용이 초고에는 들어있었다.

25) Ibid, p. 2048

26) Ibid, p. 1612

Les pierres allaient apparaître à nouveau et à nouveau, l'étendue immense bientôt surchauffée, sans abri pour l'homme. Sur cette terre implacable, les hommes, les races, les religions s'affrontaient sans se mêler jamais, sans pouvoir reconnaître de règle commune ou saluer le même dieu. Seul le plus fort imposait ici ses lois et y pliait tous les autres hommes. Lui Daru, faisait partie des plus forts et cependant il reconnaissait en regardant cette terre couverte maintenant de pierre et de neige la faiblesse fondamentale qui l'empêchait d'exercer cette force. Il ne reconnaissait pas non plus les lois de sa propre tribu et ne voulait saluer que la loi ou le Dieu qui serait celui de tous, et ne le connaissant pas, il voulait seulement attendre que sur ce désert une voix s'élève, une rosée du matin. Peut-être le silence seul lui répondrait, peut-être mourrait-il dans ce désert toujours, mais il ne voulait plus dire non, ni juger, ni détruire, ni humilier personne ou lui-même. Et c'est pourquoi il maudissait ces hommes qui lui envoyaient ce criminel et celui-ci aussi dont le crime le dégoûtait.<sup>27)</sup>

전체를 통털어 다뤘의 내면을 가장 잘 표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카뮈는 이 소설을 발표할 때는 빼어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위 인용문에 나타나있는 다뤘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모든 사람, 종교, 인종들은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s'affronter sans se mêler*)
- 2) 그 이유는 서로가 인정하는 공통 법칙(*règle commune*)이나 같이 섬기는 공통의 신(*même Dieu*)이 없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이 땅은 척박한 땅(*terre implacable*)이다.
- 4)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힘센 자(*le plus fort*)만이 그의 법(*ses lois*)을 지키라고 타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 5) 다뤘 자신도 이 힘센 자 편에 속하지만 자신에게는 이 힘을 쓰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무력함(*la faiblesse fondamentale*)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6)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종족의 법을 인정치 않으면서, 만인의 법과 신(*la loi ou le Dieu qui serait celui de tous*)만을 따르기를 원한다.
- 7)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한 그는 이 사막에서 아침 이슬처럼 신선한 목소리(*Une voix comme une rosée matin*)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한다.
- 8) 그러나 그런 목소리는 없을 것이며 자신은 어쨌든 이 사막에서 죽을 것이란 걸 다뤘는 알고 있다.
- 9) 그렇다고 그는 자신이든 그 누구든 부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파괴하거나 모욕하는 걸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 10) 그러므로 자신을 판단하고 모욕하도록 만든 자기 편 사람과 이 죄수를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뤘는 누구나 인정하는 만인의 법(*loi de tous*)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탐구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수동적인 모색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대지가 그에게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건 당연하다. 예컨

27) Ibid, p.2052

대,

*C'était ce silence qui lui avait paru pénible les premiers jours de son arrivée, après la guerre.*<sup>28)</sup>

같은 대목이나,

*Au debut, la solitude et le silence lui avaient été durs sur ces terres ingrates, habitées seulement par des pierres.*<sup>29)</sup>

와 같은 대목은 이런 점에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만인의 법은 인류 모두가 인정하는 법이기에 그것은 결국 보편적인 절대 법칙인 셈이다. 고전주의의 덕목이었던 절대적 진리를 회구하는 다뤘의 태도는, “현대의 뛰어난 고전주의적 작가”라는 카뮈의 명성과 묘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sup>30)</sup>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다뤘의 자세는 <이방인>의 뫼르소의 자세와 유사하다. 카뮈 자신이 뫼르소를 보는 입장을 나타내주는 <이방인>의 영문판 서문에서 카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oin qu'il(=Meursault) soit privé de toute sensibilité, une passion profonde, parce qu'il tenace, l'anime, la passion de l'absolu et de la vérité.*<sup>31)</sup>

절대와 진리의 정열에 사로잡힌 뫼르소나 만인의 법을 찾으려는 다뤘는 다같이 보편적인 절대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진 카뮈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절대 진리가 있다면 그곳은 그야말로 천국일 것이다. 모든 사람, 인종, 종교가 하나로 융합하여 더이상 대립 갈등의 관계가 없어질 것이며, 그러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모욕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만약 그런 절대 진리가 있었다면 지금 다뤘가 고민해야 하는 이런 사태도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위 8) 에서와 같이 다뤘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런 절대적 진리란 것은 관념 속에만 있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다뤘는 그러므로 현실을 떠나서 관념 속에서 자신의 회구를 펼쳐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힘센 자만이 자신의 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근본적인 나약함이라는 자신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만인의 법이라는 절대적인 보편 진리의 관념 속으로 함몰된 것이다. 그리고는 그 관념에 입각해서 자신을 난처한 곤궁에 빠뜨린 양편 모두를 저주할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뤘가 자기 스스로 힘센 자 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

28) Ibid, p.1617

29) Ibid,

30) “그러나 카뮈의 진짜 뛰어난 점은 진정고 아주 현대적인 감성을 완벽한 고전적 형식으로까지 올렸다는 데에 있다.” Gaëtan Picon, *Panorama de la nouvelle littérature française*, (Gallimard, 1960) p.116 참조. “카뮈는 내면 열정의 노도를 막는 일종의 방파제로서 본능적인 고전주의를 주장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모랄을 끌어내고 있다.” Roger Quilliot, *Albert Camus et son roman*, Pleiade I, p.1893 참조.

31) Préface à l'édition universitaire américaine . Ibid, p.1928

면서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나약함(*la faiblesse fondamentale*)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렇게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다뤘이지만 이미 그는 자기 편이 지배 방식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나약함은 9) 에서와 같이 자신이 판단한 것에 대해 현실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은연중의 핑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뤘이 고수하려는 절대중립이라는 것은 그가 찾는 절대 진리와 마찬가지로 환상과 같이 관념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다뤘이라는 카뮈의 인물은 개조되어야 할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자신도 그 존재를 의심하는 절대 가치라는 관념으로 대응하려 하기에 그것은 예정되어 있는 불가능이다.

작가도 얼마나 이 관념적인 보편적 법을 중시했는가는 초고 단계의 이 소설의 가상 제목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1954년 초고에는 <눈 밑에는?, 카인?, 법? *Sous la neige?*, *Caïn?*, *Loi?*>이라고 세 개의 가상 제목을 놓고 망설인 흔적이 있는데,<sup>32)</sup> 우리는 여기서 법이란 만인의 법 즉 보편적인 절대 진리를 말하며, 그러므로 이것은 다뤘 내면의 관념 세계와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려는 의도란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V.

다뤘에게 있어 현실의 척박함은 어느 법도 만인이 수공하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다뤘은 어느 법도 신뢰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려는 비결정을 고수하면서 절대적인 보편적 진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진리는 당연히 관념일 뿐이다. 어느 한편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이런식으로 자신도 그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는 만인의 법이라는 관념을 내세워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인의 법이라는 관념은 실제 현실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다. <잘 알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동료애>라는 다뤘의 고백과 같이 실천되지 못한 지식은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행동이 아랍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질 것이라는 강박관념은 계속해서 다뤘에게 작용하고 있다. 가령 다음 예문,

*Mais, à une faible distance de l'école, il lui sembla entendre un léger bruit derrière lui.*

*Il revint sur ses pas, inspecta les alentours de la maison: il n'y avait personne.<sup>33)</sup>*

와 같이 아랍인과 함께 길떠날 때 아무도 없는데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환청 현상이나, 다음 예문,

*Et dans cette brume légère, Daru, le coeur serré, découvrit l'Arabe qui cheminait lentement sur la route de la prison.<sup>34)</sup>*

32) Ibid, p. 2048

33) Ibid, p. 1622

34) Ibid, p. 1623

처럼 감옥으로 가고 있는 아랍인을 바라보는 다뤘의 가슴이 죄어든다는 대목은, 자신을 응시하는 아랍 측의 보이지 않는 시선에 쫓기면서 내심으로는 아랍인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듯이 보인다.

카뮈는 초고에서는 감옥으로 가고 있는 아랍인을 안타깝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다뤘의 심정을 나타내는 위 33번 인용문으로 이 소설을 끝맺었으나, 완결본에는 여기에 다음 한 단락을 더 보태어서 끝을 맺는다.

이것은 그것만으로는 작가의 심정을 완전히 표현하는 데에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일 텐데, 그 부족함은 결국 추가로 덧붙여진 이 소설의 마지막 종결 부분의 의미일 것이다. 덧붙여진 마지막 결말은 다음과 같다.

Un peu plus tard, planté devant la fenêtre de la salle de classe, l'instituteur regardait sans la voir la jeune lumière bondir des hauteurs du ciel sur toute la surface du plateau. Derrière lui, sur le tableau noir, entre les méandres des fleuves français s'étalait, tracée à la craie par une main malhabile, l'inscription qu'il venait de lire "*Tu as livré notre frère. Tu paieras.*" Daru regardait le ciel, le plateau et, *au-delà, les terres invisibles qui s'étendaient jusqu'à la mer* Dans ce vaste pays qu'il avait tant aimé, il était seul.<sup>35)</sup>

실제로는 없는, 흑판 위에 서툴게 씌어 있는 "넌 우리 형제를 넘겨 주었어. 그 댓가를 치를 것이야."라는 글은, 다시 한번 다뤘가 아랍 측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억울하게 이런 부당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다뤘는 이곳이 아닌 <저 너머(au-delà)>, <보이지 않는 대지(les terres invisibles)>를 꿈꾸고 있다. 그곳은 물론 만인의 법, 절대 진리가 있는 곳일 것이다. 즉 관념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현실에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가 최종적인 포기와 결별의 선언처럼 들리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이 넓은 고장에서 혼자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

35) Ibid.